



라운아미디소리랑카
4월 보고서

Contents

- Learn

- 랑카 새해를 경험하다.
-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 Think

- 라온아띠와 아이들
- 라온아띠와 마을
- 라온아띠와 방향

- Act

- Batticaloa trip/Excursion
- Invitation

- 나눔/Essay/여담

- 모기밥과 비자문제



담블라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실감나도록 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졌다.



시기리아 정상 에서 나뭇 요가를 해본다고 시도한 애리 단원

4월에는

‘앎’의 후속편이다. 절망과 희망, 아픔과 기쁨, 불편과 즐거움.어이 없이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칙망, 사이불학치태)
:배우고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헛
것이고 생각만 하면서 배우지 아니
하면 위태하다.
-논어 제44강 위정편-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아띠스쿨 태권무 수업 2. 비자 연장하러 콜롬보로 3. 콜롬보방문(비자)	2 1. 콜롬보방문(비자) 2. PERIYA KALLAR로 출발 - 도착	3 1. 연맹에 보고서 제출 2. 아띠스쿨 미술수업 3. 타밀어수업	4 1. 도서관정리 및 회의 2. 타밀어수업	5 1. 도서관 & 350ppm 설문지 1차 가안 2. 6P.M 쿠말네 Soial Noght
6	7 1. 오전 7시 칠드런 클럽 홍보 2. 오전에 도서관 방문 3. 영어 수업 4. 타밀어수업	8 1. 오전 7시 칠드런 클럽 홍보 2. 도서관 정리 3. 칠드런클럽접수마감 4. 태권무 수업 5. 타밀어수업	9 1. 영어수업 2. 타밀어수업	10 1. 아띠스쿨 미술 수업 2. 타밀어수업 3. 3월보고서 완성	11 1. 도서관 정리 및 회의 2. 타밀어수업	12 1. 쿠말아저씨네 한국어교육
1. Ampara로 Homestay 13	1. Ampara로 Homestay 2. Poya day(보름) 3. 스리랑카 새해 14	1. 바티칼로아 & 파세쿠다 여행 15	1. 영어수업 2. 칠드런 클럽 합격 통보 3. 타밀어수업 16	1. 체육놀이 수업 17	1. Good Friday 2. 배현근 코이카 단원 놀러오심 3. 쿠말 저녁 대접 18	1. 쿠말아저씨네 한국어 교육 2. 비두세나생일 3. 특송연습 19
1. 부활적 새벽예배 (05:00-07:00) 2. 특송 20	1. 영어수업 2. President와 회의 3. 타밀어수업 21	1. 태권무 수업 2. 저스틴과 회의(홈스테이) 22	1. 프로그램들 정리 2. 영어수업 3. 칠드런클럽 통보 23	1. 음악 수업 2. 타밀어수업 3. 칼무네 준비물사러가기 24	1. 칠드런 클럽 입단식 25	1. 레누네 집 방문 26
1. 쉼비, 레한과 해변으로 27	1. 영어 수업 2. 도서관회의 28	1. Excursion, (누와라엘리아) 29	1. Excursion, (캔디, 담볼라) 2. 박산디엄마 생신 30	1. Excursion (시기리야) 2. 비자연장, 콜롬보로 이동 5/1		



earn

That you are here- that life exists
and identity,

That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그것은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삶이 존재하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줄의 시를 쓴다는것

-O ME! O LIFE 中-

홈스테이, 여자단원들이 피물렀던 가정.

Easter

십자가에 못박혀 예수가 죽은지 사흘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이다. 영어로는 이스터(Easter)이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삶은 계란을 나눠먹는 의식이 있다.

아띠에게 부활절은 누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고, 다른이에게는 첫 경험이기도 하다. 서로 믿는 것이 다를 지라도 지금 이순간 우리는 진지하고 열정적이다.

부활절 아침을 알리는 새벽 예배, 목사님과 아이들이 교회에 불을 밝히며 예배는 시작된다.

Easter

취업단원 - 믿는 다는건

스리랑카에 와서 지금까지 많이 변한 부분은 종교에 대한 **믿음의 성장**이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에 대한 나의 가치관들이 변화하게 되었다. (타 종교를 가졌거나 내용이 부담스럽다면 이 내용은 패스해도 좋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나를 구성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일요일에 교회 가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로 알고 살아왔다. 사실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에 대한 알게 모를 신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깨져버리고 있다.

이번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한국에서 부활절이라 함은 계란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어떠한 신앙적 고백도 없이, 계란과 같은 물질이 예수의 참뜻을 가려버렸다. 하지만 스리랑카 교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걸었던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한다. 새벽 다섯 시 메인 도로를 도보로 함께 걸으며 새벽 예배로 향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 길을 함께 한다. 부활절행사는 일주일간 진행되며 특히 Good Friday에는 기도와 말씀만으로 채워진 2시간동안 예배가 진행된다. 기도로서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친한 친구에게 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 놓는 것처럼 어찌하면 아직 나와 신의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제니퍼가 '예수는 나의 **베스트프렌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제니퍼에 대해 언급한적 있음)언제나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던 걸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한다. 그만큼 그런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모든걸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그만큼 그와 **친구가 된다는 건 중요한 일이다.**

부활절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준비한
이식을 먹고 있다. 삼촌이 계란을 무한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았었다.



마로단원 - 첫 부활절

한국엔 기독교가 많다. 물론 나는 무교라서 참여는 안 했지만 학교 앞에서 교회사람들이 나눠주던 삶은 계란을 받아 본 기억만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몰랐었다. 그런 부활절을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스리랑카 식으로 겪어보게 되었다. 기독교에서 엄청 큰 행사라고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엄청 바빠 보였다. 오전 행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녁 행사는 밥도 같이 먹고 엄청 신나고 유쾌한 경험이었다.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사람들의 행복, **웃음이 나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았다.** 비록 기독교는 스리랑카에서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스리랑카 기독교 문화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Easter

그들 삶의 일부만이 되어버린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를(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니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모여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Easter

애리단원

非종교인인 나는 스리랑카에 온 후 이런 다양한 종교행사들이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한국에서는 내가 안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거나 느껴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눈에 쉽게 보였다. 이번 기독교 관련 행사들을 지켜보면서 3월에 진행되었던 20일간의 힌두축제가 새록새록 생각났다. 그 종교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런 행사들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들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를(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니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교회유스멤버들이다 부활절행사에서 멋진구두를 선보여 뜨거운 박스갈채를 받았다. 저기 믿음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제니퍼양도 보인다. 가장이 뺀 보이는 친구가 제니퍼다. >(회업단원의 사신은) 오른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애리단원과 이경단원이다.



이경단원

우리의 엄마 박산디엄마가 연극을 준비했다.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종교를 가진다는 건 나로서 힘든 과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나 스스로를 믿으며 의지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로 내가 아닌 신을 믿는 일련의 시간들은 나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져왔었다. 처음에는 초조하고 자책도 하였지만 지금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칼라지역에서 내가 느끼는 종교는 신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가고 있다. 아직은 사람이 좋아서 가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만나는 게 좋다. 부활절에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나도 함께 하고 싶었다.



Home Stay

맨발로 한 걸음, 한걸음 길을 때마다 (나름 진지하게) 이 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느껴보려고 했다. 구경만 하는 경험이 아니어서 더 의미 있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간찬형 집을 떠나기전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로의 안부를 응원한다.

Home-stay

스리랑카 New Year 4월14일



취업단원

싱할라 지역인 암파라에서 스리랑카 최대의 명절인 New Year과 함께 홈스테이를 보냈다. 남자 단원들이 지낸 집은 칸찬형(?)집인데 암파라 불교 사원 근처에 위치해 있어 스리랑카 뉴이어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스리랑카에서 New Year 행사는 우리의 설날보다는 불교행사 같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이다. 물론 스리랑카 전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민족대 이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새벽부터 짜여진 형식을 대통령을 비롯한 싱할라 모든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의식을 진행하였다. 일본 일초라도 늦지 않도록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생각나는 의식 중 하나로 새벽에 마을을 돌며 마을사람들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흰색 옷을 모두 차려 입고 미쳐 새벽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같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은 한국의 설날이 가족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점과 상반된 것 같았다. 귀찮을 법도 한데 가가호호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웃사촌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이 스리랑카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

마로단원 - 세 번의 새해

스리랑카의 새해는 양력, 음력 1월1일이 아닌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란 그래서 가장 더운 날이기도 하다. 날씨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던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는 등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뭘가를 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점이다. 스리랑카 새해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매년 다른 그 시간에 맞춰 거기에 맞는 의식들을 한다. 또 코코넛 밀크를 끓여서 넘치면 복도 넘친다고 믿는 문화도 흥미로웠다. 그리고 때마침 뽀야데이(보름)도 겹쳐서 싱할라족의 뽀야데이 풍습도 경험해보고 우연히 절에서 하는 퍼레이드에도 구경이 아닌,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다. 음식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절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것이었는데 신에게 받치는 음식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맨발로 한 걸음, 한걸음 걸을 때마다 (나름 진지하게) 이 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느껴보려고 했다. 구경만 하는 경험이 아니어서 더 의미 있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Home Stay

우리는 일박이일 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너무 사랑을 받아서 미안했다. 나의 경험을 위해서 이 가족들의 삶에 우리가 끼어들어 정이 든 채로 우리가 가버리면, 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미안했다. 눈물이 많은 나는 집을 떠날 때 올라오는 감정을 참아야만 했다. 눈물을 보이면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만 같았다. 또 오겠다는 말도 자신이 없었다. 감정을 누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은 무거웠다



Home-stay

애리단원



암파라를 떠나기 전, 주변 친척집을 씩 다 돌았다. 가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 사진 한 컷. 해마 애리 단원 락시 사진은 이경단원이.

나의 홈스테이는 **새로움,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으로 정리될 수 있다. 스리랑카 설 연휴에 진행되었던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타밀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를 싱할라 지역으로 데려갔다. 스리랑카에서 맞이한 첫 새해를 갈라 사람들과 지낼 수 없다는 게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싱할라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해본다는 게 설레었다. 스리랑카 설 문화에 대해 배운 것은 물론, 암파라 교외지역에 사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을 잠깐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새로웠다. 이경단원과 홈스테이를 함께 했는데, 우리는 다른 일행들이 우리를 그 집에 두고 떠나자마자 그 가족의 딸들이 되었다. 도터(Daughter)라 불리며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나의 '엄마' 목록에 또 한 명의 엄마가 추가되었다. 이 마을의 문화는 새롭다 못해 당황스러운 경우까지 마주하게 했는데, 바로 강가에서 한 목욕이다. 목욕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큰 가방에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원래 딸들인 해마와 야누마가 자전거를 타라고 했다. 강가에 멈춰서더니 탈의 후 water cloth라는 천을 몸에 들렀다. 그리고 강가로 직행.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엄마까지 우리 다섯 여자는 어떤 남정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든 어찌든 함께 목욕을 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갈라처럼 이 마을 역시 친인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해마 야누마 자매와 함께 찾아 봐줬다. 우리는 싱할라어를 못하고, 그 분들은 영어를 못했지만 손짓발짓해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를 흔쾌히 도터로 받아주신 엄마 아빠는 함께 설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것 등 마치 오랜 시간 지내온 것처럼 해주셨다. 그래서 떠날 때,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홈스테이가 해당 문화를 배우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홈스테이 제공자에게 **폭력적**이다. 다른 홈스테이 프로그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1박2일간 진행되었던 우리의 홈스테이는 그렇게 평하고 싶다. '1박2일 동안 도대체 너가 무슨 情을 느꼈다고 그렇게 평하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았던 엄마의 눈물과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꼭 오라며 잡아줬던 그 손은 잊을 수 없다. 맞다. 홈스테이 이후의 그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것이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지극히 대상자가 배우기 위해 제공자가 존재하는 구조**였고,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

Home-stay

이경단원

스리랑카의 새해는 4월달에 있다. 이미 일년의 4달이 지나갔는데 새해라니 똥똥지 같겠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이날을 좀 더 스리랑카 사람들의 새해 풍습을 느껴보기 위해 암파라 지역으로 홈스테이를 떠났다. 애리단원과 나는 같은 집에 지내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목욕을 하러 갔다. 산길을 따라서 따라서 가다보니, 냇가가 나왔다. 초등학교 때 동네 물가에 물놀이하던 기억이 났다. 그래도 냇가에서 목욕은 처음이라, 누가 볼까 봐 당황했다. 결국엔 한 아저씨가 지나갔지만... 거기다가 물 아래에서 물고기들이 계속 쪼아대서, 내가 목욕을 했는지, 물놀이를 했는지 구분이 안 갔다. 그래도 목욕을 하고 나서 이곳이 더욱 편해졌다. 이제 더 이상 숨길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밥은 한끼한끼가 너무 맛있었고, 요리도 함께 도왔다.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밥 많이 먹고 살이 찌서 한국엄마가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정도로 정이 넘쳤다. 야무나와 해나는 우리 옆에 붙어서 새해 풍습을 틈만 나면 가르쳐주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코코넛도 끓이고, 불낫(잎)을 주면서 어른께 절을 하고, 새해 음식도 만들어 나눠먹고, 친척들 집에 놀러 가고, 모두들 korea daughter들을 친딸처럼 받아주었다.

우리는 일박이일 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너무 사랑을 받아서 미안했다. 나의 경험을 위해서 이 가족들의 삶에 우리가 끼어들어 정이 든 채로 우리가 가버리면, 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미안했다. 눈물이 많은 나는 집을 떠날 때 올라오는 감정을 참아야만 했다. 눈물을 보이면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만 같았다. 또 오겠다는 말도 자신이 없었다. 감정을 누르면서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은 무거웠다.



야무나, 애리단원, 해마, 이경단원. 입은 옷이 쌍쌍으로 비슷하다.



hink

최고의 피날레를 위해 꼭 필요한 고민

쓰레기였던 플라스틱병과 유리병을 모아 아이들과 함께 악기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리듬을 타니 흥이 절로 난다.



Raon Atti Program

라온아띠 프로그램으로는 아티스쿨, 칠드런클럽, 도서관운영, 유스클럽(5월 예정) 350ppm(6월 예정) 등이 있다.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아이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이 보인다.

취업단원, 저는 참 할말이 많아요

태권도: 페리아칼라 아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수업이다. 허리춤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던 다리를 국내훈련 때부터 걱정했는데 이제 진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태권무이지만 태권도를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했다. 어쨌든 몇 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차렷!절!을 기억하고 절도 있는 모습을 보니 부족한 실력에 잘 따라와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태권무시간 있는 힘껏 발차기를 하면서 한주간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어버린다. 국내훈련 때는 태권도 경험이 한번도 없는 우리가 왜 태권무를 가르쳐야 하지는 의문을 품었는데, **여기 와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과목이 되어 버렸다.** 뒷장에 계속.

아띠 스쿨-산 넘어 산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3월 내내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으로 4월 2일 아띠의 이름을 걸고 '아띠 스쿨'을 시작하였다. 첫 몇 주는 대성공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왔고 무려 8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 이때는 야생에서 자란 듯한 말쑥꾸러기 아이들이 조금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다.

그런데 순항하던 배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초가 곳곳에 있었다. **학교시험, New Year기간에 방학,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된 건기시즌** 덕에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4월 중반에 다다르자 아띠스쿨의 숫자는 급기야 4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너무 더운 날씨에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영어: 스리랑카 내에서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진행했다. 간단한 영어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고, 유명한 타밀배우들의 이름으로 반을 나누었다. 수업시간 동안 산으로 들로 떠나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주로 **게임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대본을 만들어 타밀어로 번역하였고 수업과 시험을 병행하였다.

내가 맡은 반은 중간 점수 대의 아이들로 문법과 회화 보다는 기본 단어와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되도록이면 주지 않고자 노력**했다. 함께 배워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바닥에 앉아서 수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매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에 내 기분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는 수업을 했을 때 그 뿌듯함은 나를 춤추게 한다.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의 숫자가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아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할 것 같다.

Raon Atti Program

이어서 예체능: 스리랑카 교육 정규과정에서도 몇몇 과목에 편중되어 있어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들었다. 이 작은 칼라 마을에서도 오후 4시면 English, Economy 등 주요 과목에 대한 과외가 줄을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어릴 때부터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연습 대신 치열하게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내가 느끼기엔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한테 잘 보여 계속해서 돈이나 시계 등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에게 돈이 아닌 칼라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들판의 풀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게 했다면 또 다른 스리랑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리랑카 아띠팀은 일주일에 한 시간 만이라도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바랐다. 첫 수업시간 때 흰색 천에 손바닥 찍기 수업을 했었다. 자신의 손으로 대충 찍은 흰색 천이 멋진 작품이 되고, 색깔에 색깔을 더하면서 변화하는 색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다. 물론 개구쟁이 아이들 때문에 온몸에 물감을 묻혀 끝내는 검은 팔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게 된다.

예산상의 한계로 더 좋고 멋진 재료를 준비하지 못해 언제나 미안할 따름이다. 하지만 색칠을 칠하고 울동에 맞춰 춤을 추면서 우리 몸으로 느낀 기억들은 추억이 되고 앞으로도 살아 숨쉬지 않을까?



Raon Atti Program

-Children Club-

3,4월 동안 회의를 통해 칠드런클럽의 방향을 결정했다. 페리아 칼라를 벗어나 **나라 밖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시 페리아 칼라로 돌아와 같이 **지역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칠드런클럽의 아이들을 모집할 때부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원을 하든 칠드런클럽의 목표를 이해하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칠드런클럽2기 입단식을 열었다. 성대하게 치르는 것 보다 손으로 준비를 해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밤을 꼬박 새면서 데커레이션과 영상, 그리고 첫 만남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며 진행순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아이들이 입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전에 아이들에게 연락을 돌리지 않은 실수가 컸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물 사용이 불허하자 기존 계획도 어느 정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뭐..라온아띠 활동하면서 쉽게 되는 것이 어디 있겠냐 만은.....아무튼 걱정거리가 늘어나니까 머리가 땅에 박힐 기세다. 정말로 아띠 팀원이 없었더라면 이미 난.....**후후**

사실 칠드런클럽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실제로 준비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참회의 고백을 해본다. 개인적으로 5개월동안 아띠로서 삶을 칠드런클럽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만큼 실망감도 크고 반성의 정도도 컸다. 우리가 국내교육에서 많이 느끼고 깨쳐서 이렇게 멋있게 살수 있는 것처럼(아니면 말어) 칼라 아이들에게 지구시민교육과 커뮤니티 맵핑을 통해 아이들도 변화 하였으면 좋겠다. 또 이어서 다음장..휴 쌓인게 많네요

위에서부터 1. 맨날 수업시간에 YMCA 뒷마당에 과일나무에 오른다. 과일이 떨어진 후 이들은 사라졌다. 2.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물감로션을 온몸에 발라 주었다.

마지막으로 Library

3월 말 도서관 재오픈과 함께 현재까지 매주 30~4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YMCA마당에 놀이터가 함께 있다 보니 일반적인 도서관의 모습으로는 책을 읽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조용하고 칙칙한 분위기의 도서관을 버리고 친구와 서로 책도 읽어주고 느낌 점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그 성격을 바꿔 보려고 한다. 생각 나눔을 위해서 한국에서 받아온 교육방송 다큐중에서, 이스라엘 교육법과 미국의 한 대학교의 교육법에 대한 것이 있었다. 이들 교육법의 공통점은 큰 소리 내어 친구를 비롯한 상대방과 토론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다큐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훨씬 장기기억을 돕고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육법은 익숙지 않다. 어디를 가든 조용한 곳에서 책읽기를 해야 했고 상대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이 곳 아이들과 사서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이 된다. 잘못하다간 도서관이 그저 떠드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도서관 사서인 쉐비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다시 보드멤버와 프레지던트에게 전달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도서관문제를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다가오는 5월에 새로운 보드멤버로 구성된 회의에서 도서관 예산책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마 이 부분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도서관의 운영이 완성되어 가지 않을까 본다.

Raon Atti Program

왼쪽에
서부터
1. 도
서관에
서 발
표하는
아린
아이

2. 태권
무시
간, 말
안들던
아이들
도 이
시간엔
곧보이



마로단원, 홍삼 엑기스 같이 짹 뽑아낸 이야기

3개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아티스쿨, 칠드런 클럽, 도서관.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의 참여도와 라온아띠가 최종적으로 떠난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아티스쿨 제외) **지속성**이었다.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오다가 점차 줄더니 20명 남짓의 애들만 오고 있다. 수업이 애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수업방식도 바꿔보기도 하고 원인을 찾으려 애들 집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다. 이 물음은 애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칠드런 클럽과 도서관의 경우에는 라온아띠가 칼라에서 완전히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칠드런 클럽은 라온아띠를 제외한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라 담당자를 요청했다.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사서를 요청해서 구하고 함께 회의를 하며 최대한 사서인 쉐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며 라온아띠 도서관이 아닌 쉐비의, 칼라 YMCA의 도서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봉사활동이 아닌 **자원활동**이라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배워가는, '베품'이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게 노력 중이다.

Raon Atti Program

칠드런클럽 입단식을 준비 하면서 밤을 꼬박 샀다.
어두움이 깔린 칼라에 유일하게 밝혀져 있는 한 집. 아이들은 모두 올러나? 준비한
음식은 좋아할까? 당황하면 어찌지?
불안한 마음에 흘러가는 시간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아침은 찾아왔
다. 속속히 들어나는 마을 어귀의 모습에
불안하고 어둠던 우리들 마음도 이내 밝혀졌다.
새벽 5시 30분. 마주친 일출에 잠시 고민은 접어두었다.
그래 어둠에 모든 게 삼켜질지라도 또다시 뜨거운 아침은 찾아오겠지.
마치 우리의 완벽한 클라이맥스를 위해

YMCA에서 칠드런 클럽 입단식을 위해 철야작업을 하고 나오면서 마주친 일출.

이경 단원 - 이제 시작이야!

아티스쿨에서 내가 제일 빛나는 순간은 영어노래시간이다.(노래실력은...) 나의 수업은 수업 시작전 15분 동안 아티스쿨 아이들 모두 모여 재밌는 영어노래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 반으로 흩어져 수업을 들으러 간다. 처음에는 쉬운 노래로 아이들이 잘 따라 했다. 그러나 새로운 노래나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흥미를 잃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 지금은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전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복습하며 노래를 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나는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배웠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한다.

칠드런 클럽은 계속 미뤄지는 일정 때문에 매우 초조했다, 그래도 4월 25일 드디어 칠드런 클럽을 시작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우리는 우선 아이들을 위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축하 인사와 세계 주민들(인맥 총동원)과 한국의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10기들의 축하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영상을 무척 좋아했고, 나도 10기들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거렸다. 반갑고 조금은 원망스러웠다. 이 칠드런클럽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열띤 토론을 하고 왜 우리는 칠드런클럽을 해야하는지 꼬리를 문 질문들이 생각이 났다. 이제 첫 시작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펼쳐 나갈지 기대가 된다.

애리 단원 -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당신, KALLAR YMCA

4월에 이르러 우리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3월과 달리 직접 무언가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으려니 신경 쓸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만의 고민거리들이 새로이 생겨났다. 그 결과, 이번 기수의 목표는 1) 칼라 YMCA 버릇 고치기 2) 굵은 뿌리 만들기 였다.

1)칼라YMCA 버릇 고치기

라온아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칼라 YMCA의 습관을 고치게 하고자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허공에 내던지듯, 우리는 칼라 YMC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Children Club, 도서관 사업)에 대해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줄곧 우리가 마지막 기수라는 소리를 들어서인가, 우리는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마지막이어도 칼라YMCA가 홀로 설 수 있었으면 했다.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는 라온아띠가 직접 활동하는 부분(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아띠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라온아띠 예산을, 칼라YMCA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프로그램이 아닌, 도서 구매, 도서관 시설 보수 등)에 대해서는 칼라YMCA 예산을 사용하게끔 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기 위해서는 칼라YMCA 내에서 적은 돈이라도 일정 수준의 Regular Budget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쿨라지 칼라YMCA 총장과 공유가 된 상태다.

2)굵은 뿌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구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이 났다. 정해진 기한 내에 좀더 많은 것을 해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랬지만, 우리의 긴 토론의 결과는 '기존의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였다. 우리가 칼라YMCA에 파견된 세 번째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전 기수의 무언가를 이어서 받는다기 보다는 이름만 이어받을 뿐, 그 속을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었다. 즉, 각 프로그램들의 뿌리가 아직 잔뿌리에 불과해 땅 속에 깊이 단단히 박혀있지 않은 상태였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지만, 기존의 것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뿌리들은 쳐주고 영양제를 줘가면서 원래의 뿌리가 지금보다 굵어지게 할 것이다.



Raon Atti Program

Periyakallar

멀어짐이 그리움을 만들어 준 것 같다. 떨어져있을 수록 더욱 그리워졌다. 가족 같이,
그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생각나고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물이 끊겨 못 씻고 못 먹던 그 집이
그리워졌다.

Periyakallar

마로단원 - 현지 적응기

익숙해짐과 동시에 멀어졌다. 4월 한달 동안은 칼라를 떠나있는 일이 많았다. 3월에 쌓아놓은 관계들을 다져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런데 **떨어짐이 그리움**을 만들어 준 것 같다. 떨어져있을 수록 더욱 그리워졌다. 가족 같이. 그 말 안 들던 아이들이 생각나고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물이 끓겨 못 씻고 못 먹던 그 집이 그리워졌다. 걱정되는 점은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도 변해간다는 점**이다. 마냥 잘해주는 이방인을 넘어 친구가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과 마찰도 생기게 되고 무작정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좋은 현상 같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현지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2개월만에 또 5개월만에 완전히 융화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알아가려 한다. 우리가 떠날 때는 여기 사람들이 외국인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옆집 살던 친구가 해외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다. 칼라라는 동네가, 칼라 사람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을지도 궁금하다.



사진. 위, 페리아칼라의 하늘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아래, 스리랑카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취업단원주소메일트들

꽃피는 춘4월이다. 이곳에 적응하기 바빠 춘3월은 지나가고 이제야 내 마음에 봄 향기 가득한 칼라의 꽃 내음이 들어왔다. 칼라의 풍경도 꽃망울을 누구네 할 것 없이 터트리고, 지는 석양은 더욱 붉게 타올랐다. 사람들도 이제야 그을린 아띠 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차츰 가까워진 듯하다.

4월에 들어서 부쩍 가까워진 친구들이 생겼다. **빠바 스리랑카 점 사장님(빵집 이름이 파리베이커리이다.)**과 **Pre-School 프리엔카, 수자선생님이다.** 매일 아침 사장님의 차 경적소리가 알람이 되어 빵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자, 프리엔카 선생님은 YMCA 유치원선생님이다.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호랑이선생님으로 불린다. 고레고레 고향을 질러 아이들을 떨게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순수하고 사랑스럽다. 오전 타밀어 수업시간이 끝난 후 가지는 선생님들과 대화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삶의 활력이 된다. 내 스리랑카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한국의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지나쳤던 것일까? 2달동안의 칼라생활은 현지주민들과 관계 쌓기에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 편안한 친구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친구들. 그러나 이것만이 칼라의 전부는 아니고 내가 느끼고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아닌데 말이다. 아직 인사조차 하지 못한 이웃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말이다. 스리랑카로 오기 전 상상했던 모습들. 잠이 오면 이웃집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우체국 옆 할머니네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이런 것을 상상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알아보려고 하지조차 않았다. 문을 닫고 우리가 5개월동안 빌린 집안에 갇혀 살고만 있다. 그러기엔 칼라의 매력들이 너무 크질 않는가.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수자 프리엔카 나 좀 도와줘!!!



Periyakallar

사진. 무리를 지어 마을을 배회하는 소떼들. 가끔 문을 열어 놓으면 집에 들어와 정원에 나무들을 뜯어 먹어 골치를 썩이곤 한다.

Periyakallar

애리단원 -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3월에 칼라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4월은 그것을 유지하는 시간이었다. 3월에 맺었던 관계 때문에 칼라에서 떠나있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딤어?'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는 아직 우리는 피부가 좀더 하얀 외국인에 불과했고, 지금도 그렇다. 언제쯤 이 마을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것은 지나친 욕심 같았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함께 부딪히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딘가에 있기는 하겠는가? 마을 내에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정체성은 'YMCA에서 일하는 한국아이'인데, 이밖에 다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붙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경단원 - 집이 최고야

칼라에 있으면 사 먹을 곳도 없고, 놀러 갈 곳도 없어서 항상 나갈 궁리를 한다. 칼무네에 준비물 사러 가는 길이 즐겁고, 여행이라는 말만 들으면 설렌다. 하지만 홈스테이와 두번의 여행을 갔다오니, 페리아 칼라가 정말 내 집이구나 느껴졌다. 여행을 끝내고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아는 건물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몸이 풀어져 아무데나 누워있거나 어질러져 있어도, 또 아무 말을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이 여기에 있었다. 익숙한 곳, **익숙한 냄새, 평범한 일상**. 예전에는 특별했는데 이제는 평범하다.

4월달에 콜롬보에 처음 갔다 왔을 때, 그때는 좋은 것들만 보고와 마음이 붕 떠 오히려 그 일주일의 마음을 다잡지 못했었다. 하지만 두번째로 콜롬보에 갔을 때는 심한 교통체증과 쾌쾌한 공기, 무더위들을 겪으니 오히려 칼라가 더 좋아졌다. 매일 엄마가 밥 때마다 마로~, 임~, 린~, 애리~ 부르는 소리가 너무 정겹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들리는 삼불 만드는 우랄소리가 경쾌하다. 집 밖을 나가보니, 집 떠나면 개 고생 이었다. 집이 최고다.



시기리아 정상에 찍은 점프샷.

A_{ct}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야.

수영을 하긴 해야 겠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발밑에선 뭔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죽을 것도 같고 안 죽을 것도 같아.

두렵고, 뭔가 끔찍하지만 고독하게 막막하지만 그 고독함이, 그 끔찍함이 나를 자맥질하게 하는 거잖아

이 외로움이 힘이 되어, 나는 물을 칠 거야
태양은 푸르고 수온은 따뜻해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은 움직이고 있을 때
배낭을 메고 내가 지금 걷는 이유야

-1만시간 동안의 아시아 中-

Batticaloa Trip

아띠에게 이번 여행은

▶파시쿠다가 세계 4대 해변이라 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파시쿠다 해변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더 큰 감동을 준 건 사람들이었다. 여행은 새로운 '곳'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싶다.

한 밤 중에 떠난 바티칼로아 여행. 버스에서 한 컷

Batticaloa Trip

마로단원 - 여행,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가장 큰 감동은 **사람**이었다. 바티칼로아가 어떻고 파시쿠다가 어떻고 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밤 중에 올라 탄 버스에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 카메라 렌즈 캡 때문에 출발하지 않고 멈춰선 버스와 그 만원 버스 안에서 불평불만 하나 없이 모두가 일어나 찾아준, 그 낯설지만 낯설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찾아준 것은 단순히 카메라 캡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잊고 살던, 놓치고 살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찾아주었다. 파시쿠다에서, 그리고 바티칼로아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인을 태워준 사람들, 같이 차를 얻어 타고 길까지 안내해준 청년들. 파시쿠다가 세계 4대 해변이라 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파시쿠다 해변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더 큰 감동을 준 건 사람들이었다. **여행은 새로운 '곳'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취업단원-천국에서 지옥 가는 길

더위만큼이나 고달팠던 스케줄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휴식'이라는 단어를 꼬집어 냈다. 휴식, take rest, 쉬우시(중국어) 등 온갖 언어로 나는 내게 '쉬'를 주입시켰다. 원래 계획은 호텔을 잡고 눈이 아플 정도로 잠을 자보는 것이었는데, 천성이 그러하듯 밥 먹을 시간이 되니 눈이 저절로 떠졌다. 이왕 잠도 깨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무진장 덥고, 지루해서 세계 4대 해변인 파시쿠다로 무작정 가기로 결정했다.

바티칼로아 여행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별다른 것 없던 여행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하늘을 머금고 있는 듯한 파시쿠다 해변에서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다. 그런데 칼라로 돌아오는 길에는 히치하이킹에 성공해 공짜로 올 수 있었지만, 목숨을 내어 놓을 수도 있을 법한 분위기(?) 겪었다. (3명의 건장한 남성이 우리를 납치하는 줄 알았다.)

어찌됐던 우리의 선택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충동적이지만 짜릿했던 순간이 조금은 필요했던 것 같다. 매일매일 회의하고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 어떨 땐 기분가는 데로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이런 고백이 아띠에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짜릿한 일상들 나는 원하고 있다.



Batticaloa Trip

본 것만 따지면 사실 참 별거 없는 여행이다. 하지만 이 일탈을 함께해준 팀원들과
그들과 했던 패기 돋는 행동들이 이 여행의 핵심이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바다도 맑고 투명하고 해변이 아름다웠다.
파시쿠다는 또 한번 꼭 꼭! 오고 싶은 강력 추천하는 곳이다.



바티칼로아 인근 파시쿠다 해변에서.

Batticaloa Trip

애리단원 - 칼라에서 도망치기

일탈이었다. 페리야 칼라에 있으면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나던 때가 있었다. 집에서 쉬려하면 친구들이 찾아왔고, 먹고 싶은 것을 사러 가면 가게 아주머니에게 붙잡혀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이런 생활이 지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걱정하고 바티칼로아로 팀원들과 떠났다. 1박 2일,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조금 후회하기도 했지만,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동부의 큰 도시인 바티칼로아는 새삼 다른 느낌이었다. 홈스테이에서 돌아온 날, 우리는 밤 버스를 타고 바티칼로아로 향했고, 40여 분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룻밤을 숙소에서 자고 여행을 하려 했으나, 몇 군데 가고 나니 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간 조금 넘게 버스와 삼발이를 타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는 파시꾸다를 갔고, 옷을 안 챙겨온터라 발만 담그고 돌아왔다.

본 것만 따지면 사실 참 별거 없는 여행이다. 하지만 이 일탈을 함께 해준 팀원들과 그들과 했던 **패기 돋는 행동들이 이 여행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총 두 번의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파시꾸다에서 바티칼로아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리고 바티칼로아에서 페리야 칼라로 돌아오는 길에서 했다.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그런 일들을 저질러버렸다. 첫 번째 히치하이킹은 비교적 마음 편히 트럭 뒤편에 몸을 실었지만, 두 번째 히치하이킹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칼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려 기다렸지만, 한 시간째 버스가 오지 않았고 우리는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어떤 봉고차가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타났고, 어딘가 모르게 믿을 수 없는 그들과 보냈던 약 1시간은 스리랑카에 온 후 가장 긴장감 넘쳤다. 그때 태워줬던 그 사람들과 아직도 연락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봉고차에서 쉽게 도망칠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 **분명 우리 팀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만났을 때, 주섬주섬 꺼내어 신나게 이야기하기 충분한 경험이었다.**

이경단원 - 선택의 순간들

홈스테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방 짐을 다시 꾸려 밤 버스에 들뜬 마음을 싣고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홈스테이에서의 무거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싶었다.** 잠시 동안 일탈을 꿈꾸며 우리는 바티칼로아로 향했다. 우리가 갔을 땐 역시 연휴라 모든 가게가 휴업이었다. 폭폭 찌는 더위를 피하고자 바티칼로아를 벗어나 파시꾸다로 갔다. 파시꾸다에 가니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서를 온듯했다. 라온아띠를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놀았다. 먹는 게 중요한 우리 팀은 이날도 사비의 대다수를 쏟아 부어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바다도 맑고 투명하고 해변이 아름다웠다.** 파시꾸다는 또 한번 꼭 꼭! 오고 싶은 강력 추천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히치하이킹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외국인이라, 삼발이를 타면 항상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몇 번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 파시꾸다에서 바티칼로아로 우리를 비롯한 다른 대학생들과 트럭 뒤에서 몸을 부대끼며 왔다. 두 번째 히치하이킹은 결국 안전하게 잘 왔지만, 타고 오는 내내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와서 나에게 좋은 추억은 아니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택은 해야 한다. 어떤 걸 우선시에 놓는지에 따라 선택도 달라진다. 그리고 선택의 책임도 당연히 내가 져야 한다. 우리가 히치하이킹을 해 혹시나 위험한 일에 휘말려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꼭 쉬려고 간 여행이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져 왔다. 결국 4월 한달 간 괴롭혔던 나의 감기는 이 여행 이후로 시작됐지만,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갔던 첫 여행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Excursion

그 옛날 무수한 전쟁에서 왕조와 백성들을 지켜내려는,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오래된 불상을 보며 진부함을 느꼈던 감정 대신 이곳 시기리아는 살아 숨쉬고 있는 듯했다.



뉴와라엘리아에 있는 하카라 가든에서

Excursion



야의공원에서
야의공원에서야와라벨리

취업단원-사자산으로 향하는 여행

갑자기 하루 전날 여행을 미루자니! 일정도 이틀이나 줄어들었구만 아띠들에게 왜 그러시는거예요? 아 그러면 이번 주 칠드런클럽은?

시작 전부터 여행은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기분이 조금은 상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코디와 담판을 지었고 다음날 출발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어쨌든 꿀꿀한 마음을 안고 여행이 시작됐다. 여행 내내 때아닌 폭우와 함께 했는데 비올 때 운전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경험하였다. 전방 10m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죽령고개 같은 낭떠러지 길을 무려 3시간 동안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오늘 하루도 무사고에 감사하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탈도 많고 흠집이 많았던 우리의 여행은 그곳에 도착하자 비 온 뒤 무지개가 떠오르듯 청량함이 감도는 깨끗한 여행이 되었다.

카시아파왕이 기원전4세기에 만들어진 사자산. 높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세계 8대 불가사의. 그 옛날 무수한 전쟁에서 왕조와 백성들을 지켜내려는, 살려고 하는 이기심. 그것은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다. 오래된 불상을 보며 진부함을 느꼈던 감정 대신 이곳 **시기리야는 살아 숨쉬고 있는 듯했다.** 두 달간 칼라생활로 날씨에 무너지고,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서 스리랑카를 선부르게 결론 내렸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다시금 눈금 자를 가져다 데며, 작은 톱니바퀴가 꿈틀꿈틀 돌아가기 시작한다. 카시아파왕은 이 모든 깨달음의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마로단원 - 우와

동남아 국가에서 바람막이를 꺼내 입을 줄이야!

추울 것이라기에 혹시나 해서 챙긴 바람막이인데.....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패딩에 털모자를 쓴 사람들도 그렇고 관광지마다 입장료에도 놀라고 부처님 치아를 모신 우리나라와는 확 다른 느낌의 절, 그 곳에 치아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들이 받치는 꽃과 음식(스리랑카의 모든 꽃들이 모이는 것 같았다.), Rock Temple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불교 미술. 시기리야의 첫 인상에도 놀랐다. 갑자기 툭 솟아있는 엄청 거대한 바위, 그 위에 궁전 터. '우와'만 연발할 수 밖에 없었다. 아쉬웠던 점은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같이 갔던 코디나 프레지던트로부터 아무 설명을 들을 수 없었는데 집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알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 4일에서 3일로 줄어든 일정에 모든 것을 소화하려다 보니 진득하게 볼 시간이 없어서 **걸할기 식**으로 지나간 점도 아쉬웠다. 내가 싫어하는 패키지 여행의 여기 찍고, 저기 찍고의 느낌. 날씨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안개와 가끔 쏟아진 비가 가지는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여행에서 비가 늘 반갑지 않은 손님은 아닌 듯싶다.



· 시기리야에 오르던 중 한 컷

Excursion

내가 서투르고 모자라서 가보지 않았던 다른 이에게 감히 그 감동을 사진으로, 글로,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여행'이라 할 것이다. '오직 함께 갔던 사람이 같은 시공간에서 공유했던 느낌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행'이 좋은 여행인 것 같다.

시기리아 바위 앞에서, 손동작을 자세히 보면 바위산 정상에 시기리아의 궁터와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Excursion

이경 단원

우리의 여행은 시작부터 불안했었다. 일정이 미뤄지고 줄어들고, 화가나지만 이번달은 대체로 체념을 했다. 그래도 여행을 간다는 사실로 좋았고 다행이었다. 잠시 칼라를 벗어나 다른 곳을 보면서 스리랑카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 하루 일정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낸적이 많다. 그러나 머리만 닿으면 잠이와서 다른 팀원들 보다는 덜 지루했을 것 같다. 한번은 누와라엘리아에서 캔디로 오늘 길이 비와 안개가 심하게 끼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산절벽을 내려오면서 모두 긴장하면서 눈이 감지도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의 눈꺼풀을 가벼워질 줄 몰랐다. 그렇지만 아마 깨어 있었으면 나의 호들갑 때문에 상황은 더 위험했을 것이다.

누와라엘리아는 칼라지역과 너무 달랐다. 날씨부터 시원하고, 채소, 과일이 풍부하고, 길거리에는 추운 날씨에 대비해 니트와 모자들을 팔았다. 실론의 고장답게 산을 뒤덮고 있는 차밭들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하카라 가든의 꽃과 나무들도 인상적이었다. 오래된 나무들을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뒤에 산의 풍경과 주변 경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비가 살짝 와 안개 낀 하늘도 운치를 살려주는 듯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혼자만 볼 수 없어 카메라 셔터를 사정없이 누르느라 나의 카메라는 여기를 끝으로 임무를 완수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배형근씨를 통해 알게 된 게스트 하우스에서 하루 묵었다. 우리가 들어갈 때 한국사람처럼 보이는 남자2명을 봤는데, 알고보니 중국사람이었다. 말을 걸어보고 싶었던 찰나에 탁구대가 보여 2년전에 배운 중국어'우리 같이 탁구 치자(위면 이치 타 핑팡 치오)'라고 했다. 이 문장은 내가 2년전에 탁구를 배울 때 언젠가 중국사람과 탁구를 쳐보고 싶어, 배웠던 유일하게 제일 발음 좋은 중국어 문장이었다. 대답은 중국사람들 모두가 탁구를 잘치진 않아요 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저녁 서로 먹을 것을 들고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중국인 친구는 23살인데 나와 같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졸업하기 전, 자신의 종교인 불교의 세계적인 유적지를 여행하는 중이었다. 취업하기 전 여행이라. 왠지 대단하기도 하고 열정이 부러웠다. 그리고 그 열정이 말을 할 때는 더욱 빛이 났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에게도 그런 좋은 기운이 닿았다. 그때는 잠시 잊어버린 **열정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나에게는 꼭 필요했다.

이번 여행에서 스리랑카의 좋은 느낌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지막 여행지, 시기리아 역시도 탄성을 지르는 멋진 곳이었다. 다만 우리도 충분히 여행지에 대해 찾아보지 못했고, 코디네이터도 운전하느라 피곤해 여행내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 이해를 돕진 못했다. 여행을 끝나고 찾아보는 걸로 만족해야만 했지만, 여행기간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장소들이 충분히 나를 달래주었다.



Excursion

애리단원 - 여행을 생각으로 마무리하다.

첫 공식 여행이었다. '좋은 여행'에 대해 누군가 정의해보라 했을 때, 나는 '내가 서투르고 모자라서 가보지 않았던 다른 이에게 감히 그 감동을 사진으로, 글로,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여행'이라 할 것이다. '오직 함께 갔던 사람이 같은 시공간에서 공유했던 느낌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행'이 좋은 여행인 것 같다. 민들레 씨가 바람 곁에 따라 아무 곳이나 내려앉듯, 우연과 행운이 겹쳐 오게 된 스리랑카의 여행지는 그만큼 함께한 사람들과 즐길 수 표현 불가능한 느낌을 즐겼고, 함께 오지 못한 나의 사람들과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다.

한 가지만 빼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망치고 나로 하여금 여행 중간에 체념하게 한 것은 바로 코디네이터 때문이었다. 여행 전부터 다른 숙소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숙소가 없다며 여행을 미루려 하고, 일정도 여행 하루 전에 나와(그마저도 지명만 나와있는 정도) 여행지에 대한 조사조차 할 수 없었고, 여행 간 이후에도 코디네이터라기 보다 운전기사에 불과했다. 지난 두 달간 느껴왔던 코디네이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으로 하여금 체념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좋은 여행'으로 꼽히는 이번 여행에 대한 기록을 코디네이터에 대한 불만으로 싸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 한다.

스리랑카를 여행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비싼 외국인용 입장료'다. 현지인들에게는 돈을 안받거나 부담 될 정도가 아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의 몇 십 배가 되는 금액을 받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칭찬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재원을 만드는지 궁금할 정도로 지나치게 입장료가 싸다. 어떤 일본 관광객이 1000원인 우리나라의 유적지 입장료를 오해해 1000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입장하려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 물론 스리랑카의 몇몇 유적지, 예를 들어 Golden Temple의 경우, 금액 대비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Sigiriya나 Temple of Tooth는 그 금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다. 후자에서 말한 유적지들은 '봐, 내가 돈을 이래서 많이 받는 거야, 불만 있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 나라들을 가봤지만 유독 입장료가 비쌌던 스리랑카를 보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젊음과 늙음'에 대한 이야기다. 여행지를 가다 보니 다양한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다. 캔디에서 첫 날밤을 묵었는데,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다. 상해에서 온 친구들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종교가 불교인지라 스리랑카에 들렀고 불교 유적지에 심취한 듯 했다. 별 감흥 없이 그 친구들과 헤어졌는데, 뜻밖에도 Sigiriya에서 문득 떠올랐다. 영국에서 온 실버 여행객 무리가 '올라감'과 '힘'을 반복하며 Sigiriya를 올라가고 있었다. 의도치 않게 우리의 길을 막게 되자,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비켜줘야지'하며 갑자기 길이 열렸다. 그들의 대화를 듣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울컥함이 가슴을 퍽 막았고 중국인 친구들이 생각났다. 한 사람의 삶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기간, 같은 여행지에서 만났던 '젊음'과 '늙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아직은 젊기에 많은 것을 중국인 친구들처럼 도전해보고도 싶고, 인생의 막바지로 향해 그 과정은 힘들지라도 '늙음'을 즐길 줄 아는 실버 여행객들을 본받고 싶었다. 어른들이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야'라며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자신이 젊어져야 할 책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 나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이 복잡 다단한 생각을 나를 책임져 준 어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Invitation

자연스레 웃음이 나오고 무거웠던 분위기도 편안해졌다.
이것이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이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쿠말 아저씨. 그리고 두 자녀 제레마야(아들),레나떼(딸)와 함께

Invitation



마로단원 - 역지사지

코이카 단원 현군이형

늘 받기만하던 우리가 이번에는 쿠말네 가족과 콜롬보 버거거리에서 만난 코이카 단원인 현군이 형을 초대해서 한국음식을 대접했다. 사실 쿠말네 가족을 초대한 날에 현군이 형도 우리 쪽에 오실 일이 생기셔서 같이 대접한 것이긴 하지만 불편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연이 만든 **인연**이 또 다른 **우연**, 인연을 만들었던 것 같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힘든 것은 사실이었다. 준비하려는데 물이 끓기고 평소에 먹던 한,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하다 보니 손이 많이 가기도 했다. 아마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늘 초대 받아 얻어 먹기만 하다가 우리가 대접하려 하니깐 손님 대접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었다. 새삼 우리를 대접해주신 분들의 **정성**도 느끼고 다시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우리에게 음식을 더 주셨는지, 이것저것 때로는 부담이 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주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현군이형
나는 칼라를
사랑한다.

칼라는 묘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다. 스리랑카에서도 작은 시골이다. 있는 게 사람과 나무 그리고 소 밖에 없는 이곳에 종교가 공존하고, 해외 여러 곳에서 공부하고 노동한 사람들이 적잖이 모여 있으면서 토속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웃집에 사시는 쿠말아저씨도 국제NGO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녀들에게 인터넷 자료를 모아 조기 한국어 공부까지 시키고 있다. 3월 초에 대문 앞에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이제는 우리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는 한 분이 되셨다. 매번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맛있는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마침 현군이 형도(이 분의 신상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멀리 마타라라는 곳에서 이곳에 놀러 온다고 해서 아저씨께 우리의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다.

하루 종일 다듬고 볶아서 부침개, 비빔밥, 된장국, 찜밥, 자장 등을 준비했다. 옛 어른들이 좋은 일에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맛있는 음식 앞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무거웠던 분위기도 편안해졌다. 칼라에 와서 지금까지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하여 상대방이 좋아해줄지 생각하면서 만든 음식들이 더욱 달고 맛있었다. 한국에서는 사주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내가 가진 진심을 전달하기 보단 비싸고 허세 가득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것을 통해 내 진심에 대한 답을 얻었다 생각했다. 즉, 내 감정은 사치였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과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교류**는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버린 **사랑, 행복** 등을 꺼내고 있다.

Invitation

애리단원 - 인연이라는 재미

4월 초, 비자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콜롬보 행 야간버스를 타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야간 버스를 탄 것과 달리, 우리는 겨우 1달만 연장했고 그 상황에 보상이라도 하듯, 콜롬보에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다. 감사하게도 콜롬보에 있는 라온아띠 8기 스리랑카 팀 재형오빠가 나와주셨고, 모라투와에 있는 라온아띠 7기 캄보디아 팀 성희오빠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진오빠가 흔쾌히 나와주셨다. 재형오빠의 은총으로 우리는 버거킹을 처음 가봤는데, (사실 라온아띠로 와서 햄버거를 접한다는 게 짝렸지만, 너무나도 그리워서 이성을 잃었다. 칼라와 칼라 주변 큰 도시에는 이런 것조차 없다.) 그곳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다.

KOICA 단원으로 마타라에 있는 현근오빠를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 마침 이웃집 아저씨인 쿠말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하기로 한때 오셔서 함께 한국음식도 즐기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리랑카에서 생존하는 법을 전수받았다. **인연이라는 재미를 이곳에서 새삼 경험하고 있었다.**

이경단원 - 불편하지 않는 불편

옆집 아저씨 쿠말은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선생님이자, 친구이다. 한국문화에도 관심이 많다. 직접 한국 유튜브 영상을 찾아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음식 사진들을 찾아 물어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우리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다. 비빔밥, 닭볶음탕, 짜장, 부침개, 된장찌개, 쌈밥 까지. 그리고 때마침 콜롬보에서 만난 배형근씨가 칼라로 놀러와 함께 했다. 집 앞에 테이블에서 시원하게 앉아 밥을 먹으니 야유회 온 것 같았다. 스리랑카에서 나는 우리팀에서 임장금으로 통하고 있는데 이날도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했다. 오자마자, 부침개를 부쳐서 입맛을 돋우고 식사를 했다. 우리도 오랜만에 한국 밥상이라 집 생각이 났다. 밥 먹으면서 김치 생각이 나는 걸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었다.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나를 기다린 건 아디흠(많은) 설거지였다. 물이 단수가 되어 350ppm이 되버렸다. 물을 세 단계로 나눴다. 첫 번째는 그릇을 담궈놓는 물, 두 번째는 수세미로 닦고 담궈놓고, 세 번째는 행구는 물이었다. 물을 최대한 아끼고 재활용해서 설거지까지 마치니,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4월에는 물이 부족해 밤이면 물을 받아놓고 사용했다. 한국이었다면, 분명히 불만 가득했겠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생활이 되니 문제 될 것이 없었다.**

특송

마로단원 - 마음 전달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활절 축제 무대에 서기로 했다. 평소 CCM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노래를 연습해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남을 위해 노래 불러보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 비록 한국어 노래라 여기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마음**은 전달 됐으리라.



사진. 교회에서 부활절에 특송을 부르던 모습

특송



취업단원-신앙적 성숙

칼라 생활을 준비하면서 5개월동안 찬양인도를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신앙고백이 있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잘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꿈을 꾸면서 조금 더 신앙적인 성숙이 왔다고 해야 될까? 약기가 없어서 지극히 내가 가진 목소리에 집중하여 찬양 나눔(?)을 한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기뻐었다. 운 좋게도 이 마을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공유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4월달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 있다. 나는 부활절 나이트 행사에 초청을 받았고 문득 일면도 없는 행사 담당자 분께 특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집사님으로 보이는 담당자 분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종교가 다른 다른 팀원들도 특송을 같이 하고 싶다면 나의 찬송이 아닌 라온아띠의 특송이 된 것이다. 음향기기 시설이 좋지 못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같이 연습하면서 준비해 준 우리 아띠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송을 끝난 뒤 현지 주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가 있었다. 아마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생각만을 봐라 본 건 아닐까?

애리단원 - 나를 달래기 위함

부활절 행사에서 우리팀은 '사명'을 불렀다. 4월 20일이었다. 4명이 각기 다른 이유로 참여했겠지만, 당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내가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다.

길을 가다 호의를 접하듯 세월호 소식을 인터넷 신문기사로 접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국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안타까웠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심지어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알 수도 없었다.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곳에서 지난 두 달간 계속해서 느꼈고, 한국사회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허무감**이 깊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서 기도를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느꼈던 이 허무감을 잊지 말자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 머리 속에 각인시켰다.**





우리에게 나눔의 상징인 라온아띠 8기 스리랑카 팀이자, 현재 콜롬보에서 일하고 계신 재형이형의 은총

나눔

* 나눔다.
말이나 이야기를 주고받다.
즐거움이나 고생 등을 함께 하다.
¶ 슬픔을 나누는 친근한 사이.

나눔

취업단원

버거킹과 일본 사원이 만들어준 인연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면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평생 동안 무수히 내 옆을 스쳐가는 사람들. 그 숫자조차 짐작할 수 없다. 어떨 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버스는 정차할 줄 모르고 내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세상일이 참 웃긴 게 **뜻하지 않은 길에 인연이 만들어지고 또 사랑도 시작된다.** 4월은 유달리 그런 달이었다. 스리랑카에서 한 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현근이형을 만났고, 암파라에서 홈스테이 중에 선호를 만난 것처럼. 현근이 형은 비자문제로 잠깐 수도인 콜롬보를 방문했을 때 만난 코이카 형이다. 우리가 어디서 만났냐고? 출입국사무소? 아니~

버거킹이다. 삼O 노트북가방을 길다랗게 메고 있는 것이 한국 공대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용기 내어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난번 쿠말아저씨 식사 대접 때 4~5시간 버스를 타고 우리 집을 놀러 왔다. 사천에 사는 선호 역시도 암파라에 있는 일본 사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10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스리랑카 고모부와 한국인 고모와 함께 있었다. 이후 암파라에 있는 선호 고모부네 집에서 점심을 대접받고 하루 종일 같이 암파라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 외에도 푸드시티 근처 전기방 아저씨, 마르다무네에 사시는 교수님, 바띠칼로아 의대청년 등 까지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고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에서 헤어짐에 서툰 내 모습을 목격했다. 단순히 만나고 헤어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안녕 잘있어라는 말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우리들의 추억을 감쌀 수는 없는 것인가? 무덤덤하게 떠나 보낸 그들의 뒷모습에서 식어가는 추억이 보였다. 그리고 불안이 그 자리에서 훗훗 타올랐다.

나는 선호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파란 하늘을 사랑하고 꽃 내음을 사랑하는 선호가 되렴”그러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다. 전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를 되풀이 하면서 또 다시 스쳐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다.



나눔

마로단원 - 돛단배

이번 달에는 유독 인연이 많았다. 어쩌다 보니 히치하이킹도 많이 하게 되고 (한 번은 납치당하는 줄 알고 긴장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여행을 통해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인연이 된 경우도 많았다. 바티칼로아에서 한 밤중에 우리를 태워준 청년, 깔무네에서 우리를 태워준 교수님, 버거킹에서 만난 현근이형, 코윌(힌두 사원)에서 만난 라쥬, 콜롬보 YMCA 앞에서 만난 아르감베이에 어느 리조트에서 일하는 친구, 등등 스쳐 지나갔을 법한 **우연들이 인연**이 됐다. 난 평소애 우연이 쌓여야 인연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달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자신의 몫 같다. 마치 바람과 돛단배 같다. 나에게 우연이라는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바람을 잡으려 돛을 피면 인연이 돼서 같이 나가고 그냥 흘러 보내면 지나가는 바람에 불구한 돛단배와 바람 같다. 앞으로 여기서, 남은 3개월, 또는 내 남은 인생에서 어떤 우연을 마주칠지는 모르겠다. 마주치는 우연들 속에서 인연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좋은 인연**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애리단원 - 인연의 달, 4월

4월은 '인연의 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4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3월에 열심히(?) 만들었던 칼라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인연들에 대한 책임을 못 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와 상대방 자신과의 관계를 최 우선시 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등의 행동에 이기적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었다. 이내 그런 문제들의 원인은 인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의 문제로 귀결됐지만, 이런 것들이 칼라에서의 나를 지치게 했고 앞서 말한 '일탈'로 팀원들과 바티칼로아로 향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연의 달'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유독 4월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많다. 4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현근오빠의 경우 말고도, 바티칼로아에서 칼라까지 긴장감 넘치게 태워다 준 '구비산'은 요즘도 스리랑카에서 무얼 느끼고 있느냐며 문자가 오고 있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다니엘'은 다른 나라로 갔고, 8월에 한국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주었다. 우연이 인연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저버릴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주었기에 인연이 되어버렸다.

참 아이러니한 4월이다. 칼라의 사람관계에서 지친 내가 또 다른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만들었고 유지하고 있었다. **4월의 인연들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3월의 인연들을 싫어한다거나 잊어버리고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 때문인가? 나를 욕심 내는(?), 이전에 지쳤던 상황들이 닦쳐도 지금은 행복할 뿐이다.



E ssay

평소엔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곳이라 어떤 동네인지 잘 몰랐었던 옆 동네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자전거 타고 천천히 지나갔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아는 마을이라 생각했던 마을이 새로운 마을처럼 다가왔다. 빠르게 가느라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천천히 가게 되면서 새롭게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과연 나는 한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란 생각이 들었다. 비단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란 의문이 들었다. 아마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잘 안다고 느꼈던 곳들을 다시 한번 ‘걸어서’ 천천히 다녀볼 생각이다.

사진. 캔디에 있는 부처님의 치아를 모신 'Temple of tooth, 불치사' 에서

Essay

마로 단원- 다름에서 찾다

집이 아니었던 곳이 집이 되어가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즐거운 일이다.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찰나의 순간, 내 집이 되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이번 달에 왔다. '즐거운 개고생'이란 말처럼 힘겨웠던(?), 순탄치만은 않았던 여행들이 한 몫을 해준 것 같다. 즐거움 그 이면에 있던 편치 않은 잠자리, 장거리 이동이 가져다 준 집 침대에 눕고 싶은 욕구들이 지금 사는 이곳이 나에게 집이란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주는 깨달음**은 또 있었다. 평소엔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곳이라 어떤 동네인지 잘 몰랐었던 옆 동네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자전거 타고 천천히 지나갔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아는 마을이라 생각했던 마을이 새로운 마을처럼 다가왔다. 빠르게 가느라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천천히 가게 되면서 새롭게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과연 나는 한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비단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아마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잘 안다고 느꼈던 곳들을 다시 한번 '걸어서' 천천히 다녀볼 생각이다.

또 **말의 무게**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다. 익숙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 마을에 우리 팀원 4명뿐이고 부족한 영어, 익숙하지 않은 타밀어를 사용하면서 '과연 내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로 말을 뱉으며 살고 있는지,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무게인지, 나는 무게를 실어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않았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에서의 대화뿐만 아니라 SNS등 인터넷을 통해 너무 쉽고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유로워진 만큼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책임은 잊어버린듯한 느낌이다. 특히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는 특히 더 신중해져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다. 말은 아름답지만 때론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어쨌거나 제일 우선은 자기자신부터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듯싶다.



Essay

이경 단원 - 수고했어 다들. 오늘도

이번 달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건, 3월 달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었으면, 4월 달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었다. 홈스테이, 여행으로 칼라 밖에 있으면서 연락이 줄고, 자주 얼굴보기도 힘들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귀는 것 보다 이어나가는 게 더 힘든 한달이었다. 솔직히 한번 만나고 사람을 사귀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 번 보고 두 번보고 자주 만나면서 더 친해져 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소홀히 했었다. 그래서 다음 만남이 어색한 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나는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수단적인 만남이 되는 걸 경계한다. 나는 필요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3월 달에 뚜지따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다.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너.(나중에 뚜지따가 이 글을 보고 감동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심한 감기로 고생을 했었다. 타지에서 아프면. 다들 느낌 알 듯이 한국가고 싶고 서러웠다. 나는 타지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나름 괜찮을 것이라고 위안을 했지만, 아프면 엄마가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엄마는 시크하게 내 통화를 안 받으셨다.

또 아프면 내가 할 몫을 나머지 팀원들이 대신 해야 해서 많이 미안했다. 민폐 끼치기 싫어서 스리랑카 만병통치 차 “사마한”을 달고 다녔다. 사마한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들 한달 동안 모두 고생 많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디를 자주 볼 수 없었다. 우리 옆에서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고립시켰고, 외롭게 했다. 결국 우리 두발로 뛰어나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시켜갔다. 화도 많이 났지만, 어느 샌가 지쳐서, 체념하게 된 순간도 있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한 건 없어서 괴로웠다. 일기를 써도 나쁜 기억은 기억이 잘나서 한 가득하다. 매일 저녁 마음속으로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말한다. 오늘 또 한 달을 정리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수고했어 다들. 오늘도.



Essay



애리단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여서 행복해요

3월 보고서가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꾸며졌듯 나의 3월은 비교적 '짱'했다. 반면, 이번 4월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회색 그 자체다.

앞선 부분에서 말했던 개인적인 관계문제뿐만이 아니라, 4월의 라온 아띠 활동은 나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들었다. 4월은 비자문제로 시작되었다. 3월부터 버리고 버리면서 구상했던 프로그램들의 시작에 큰 타격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오라고 홍보를 했지만 홍보활동이 끝나고 온 후 저녁, 우리는 갑자기 비자문제 때문에 종이 한 장만 남긴 채 칼라에서 떠났다. 당연히 그 이후의 상황은 볼 보듯 뻔했다. 참여율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피해본 것에 비해 콜롬보행은 겨우 1달의 시간만 연장할 뿐이었다. 여행 중간에 연락 받았던 2차 비자연장 역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는데도 갑자기 불거져 나와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취소했고, 취소 공지마저도 다른 이에게 부탁해 붙일 수 밖에 없었다. 스리랑카 연맹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된 급작스러운 취소행렬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었다. 매번 다음 기수의 비자는 어떻게 하겠다며 하는 그들의 입에서 지금 기수가 피해보는 것을 줄여나가겠다는 언급조차 들을 수 없어서 항상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탓'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었다'로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쓸 수밖에 없다.) 로컬 코디네이터와 연맹 코디네이터는 서로를 '탓'할 뿐, 문제상황에 있어 책임지기를 싫어했다. 둘 다 그러는 것에 내가 뭐라 고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보는 것은 우리 팀이어서 화가 났다. 우리의 프로그램에는 관심조차 없고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는 로컬 코디네이터는 월말 보고서를 위해 사진을 달라고 했고, 로컬 코디네이터가 연맹의 탓을 하기에 연맹 코디네이터에게 문제상황을 얘기했더니 자신이 그 정도의 일 갖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냐고 했다. 로컬 코디네이터는 얼굴을 계속해서 맞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우리가 불편한 상황들에 있어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한결 같다.

4월의 행운을 꼽자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홀로 겪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혼자 이 상황을 겪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고자 이런 상황들을 A-Z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끔찍하다. 그런 설명 따위 필요하지 않는 우리 팀이 좋았다. 우리 팀의 언니오빠들은 알고나 있을까. 이 막내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함께 마주하고, 함께 허탈해하고, 함께 체념하고, 바로 고개를 돌려 다른 일로 웃는다는 것이 이번 회색 빛 도는 4월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다. 문제상황들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즐기고 있다. 불평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함께 해쳐나갈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행복하다. 역시 힘들어도 죽으란 법은 없다. 살아온 방식도 달라서 때로는 뼈격거리면서 맞춰나가고 의견도 분분해 오랜 시간 회의를 하기도 하지만, 같이 버텨준, 버텨주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 간모기밥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이경단원의 다리

통풍구들을 통해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모기들 덕에 우리는 모기와의 전쟁 중.

모기들이 좋아하는 타입인 다른 세 명의 단원들 덕에 마로 단원은 모기 퇴치제를 바르지 않고도 모기에 거의 물리지 않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덜 물리게 해주는 다른 단원들의 살신성인의 희생 정신이 눈물 겹다. π.π



▶ 단원들의 피를 빨아 먹기 위해 모기장에 붙은 모기들

여담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

4월에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만든 모자이크

셀비,수자,프리엔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가인들



▼편안히 자는 마로단원



▼이경단원



▼회단
원

파시쿠다에서 만난 바티칼로
아학생들



▼5cm 바퀴벌레

▼Excursion에서 중국친구를 만났다.



아미미술시간, 흰
색천에 손바닥 찍
기



발레리나처럼 포즈, 마로단
원



◀실제 불교사원에서 있었던 코
끼리의 뼈

우리에겐 나눔의 상징인 라

은송

▼스리랑카 어린 동자스님들



◀로샨의 약기연주

▼셀비,레한과 바닷가에서



고마우신 아저씨 하이킹 성공▶



덕복에 히치



◀포켓볼과 알까기를 합친 게임



◀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바티칼로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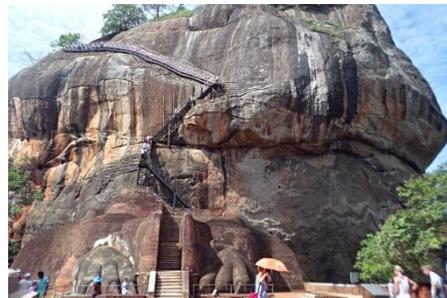
◀칼 라 President 와 한컷



◀토요일 한국어수업



◀ 파시쿠다해변에서



◀시기리야사 자산 앞에서

비자 Problem

비자 만료 D-5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만우절 당일 날 콜롬보로 떠나게 되었다. 코디인 빈센스가 밤에 콜롬보로 떠나야 된다고 해서 장난인줄 알았다.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장난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타고 나서도 깜짝 파티를 내심 기대했었다. 현실은…….

비자 만료 D-4

6시간반을 달려 콜롬보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스리랑카 YMCA 연맹으로 가서 상황 설명을 들었다. 다른 한국 단체 40명이 스리랑카에서 술 먹고 싸우다 쫓겨났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비자연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모라투와 지역 라온아띠 코디였었던 아쇼카와 출입국 관리소로 향했다. 최고조의 긴장감을 갖고 기다리며 인터뷰를 했지만 Tourist Visa로 와서 여행이 아닌 다른 활동을 했다고 원래 목표였던 4개월 비자연장은 실패했다. 대신 Visit Visa로 변경해서 겨우 1개월 연장 할 수 있었다. 조금 더 늦었거나 상황이 더 심각했다면 자칫 불법 체류자나 한국으로 조기 귀국 할뻔한 만우절 거짓말 같은 아찔한 일이 만우절에 벌어졌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며…… 비록 웃고 있지만 웃는게, 웃는게 아니었다.



To be continued...